



다양한 분야 시민의 목소리 대변 ·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소상공인 보호 · 지원 조례 · 청년희망도시 구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결의안 채택 등 현안해결 노력

전주시의회는 '66만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 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34명의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에 충실 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전주시의회는 2016년 상반기 동안 정례회(1회)와 임시회(5회) 등 6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49건, 동인안 12건, 결의안 1건 등 총 83건의 의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25건의 의원발의가 있었고,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시의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 당초 약속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복 이전 약속을 촉구했으며 최근에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

시의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4회의 시정질문과 26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6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시의회는 또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연구회, 의정포럼 '함께배움', 전주비전연구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등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정례모임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 강연회, 비교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오고 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내 대학생 32명으로 구성된 의정 사이버 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방의회를 좀 더 이해하고 의정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발굴해 내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 체험학습, 의회 본회의장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34명의 시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인터뷰 - 박현규 의장

“시민들 편에 서서 복리증진 최선”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년간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특히,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실천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어왔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급여결제모으기」, 「까레이스키인 한복보내기」 등 뜻깊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고, 전북혁신도시의 성장, 전주교도소 이전문제, 전라감영 복원 추진 등 전주시의 오랜 숙원들을



해결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지켜내고 탄소유성법 제정의 기쁨을 이루는 등 지역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다.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박 의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정책발굴에 만전을 다해 전주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터뷰 - 김명지 부의장

“내실 있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 힘써”

김명지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66만 전주시민의 소중한 뜻을 대변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한편 뛰어난 친화력과 보이지 않는 리더십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다.

66만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가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



며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잇는 명품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동내복지 실현과 전라감영복원사업, 탄소산업 등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점사업을 육성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이자 내일이 더 행복한 으뜸 도시로 성장하는 데 힘 쏟고 있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희망찬 미래와 전주시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